

한국의 빛축제에 관한 사례조사

(Case Studies of Light Festival in Korea)

김현정* · 김정태**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Hyun Jeong Kim · Jeong Tai Kim)

Abstract

계속되는 조명의 발달에 의하여 과거의 난방, 취사, 보호, 빛 등의 원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빛은 오늘날 다양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도시의 축제적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제요소로서의 빛은 종교적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지역주민에게 주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효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모닥불이 18세기에 이르러 일루미네이션과 불꽃놀이 등으로 계승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종교적 행사인 연등제와 정월대보름을 기원으로 한 들불축제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폭죽, 조명을 이용한 빛축제 또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꽃놀이와 루미나리에라는 이름으로 개칭되고 있다. 또한,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는 다리의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조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빛축제의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빛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빛은 인간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조명(Lighting)의 의미 즉 어떠한 곳에 불을 비추는 것, 또는 빛을 비추어 밝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빛의 의미는 조명의 발달로 하여금 오늘날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거의 난방, 취사, 빛,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던 원시적 기능에서 벗어난 빛은 오늘날 인간의 활동시간을 심야로까지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축제적 요소로서 사람들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는 도시의 활력을 표현해 줌으로써 일부 지자체의 관광활성화를 야기 시켰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지자체의 정체성 구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빛축제 사례를 통하여 오늘날 국내 빛축제의 현주소와 축제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빛축제의 역사

2.1 유럽의 빛축제

최초 불이 발견된 이래 불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종교적 의식의 하나의 예로 불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축하의 모닥불이다. 사람들은 산처럼 높이 쌓아놓은 장작더미가 타는 것을 보면서 불꽃의 맹위와 밝기, 파괴를 총체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 이 축하의 모닥불을 계승한 것이 조명과 불꽃놀이이다. 바로크 시대에 절정을 맞은 불꽃놀이는 폭죽·조명탄과 함께 어우러져 화려한 밤의 궁정문화를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든 축제가 낮에 이루어졌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밤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동이 틀 무렵까지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조명의 경우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가였던 수천 개의 양초가 사용되었고 불꽃의 제조에도 높은 비용이 필요했던 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먼 고급축제였다.

유럽의 빛축제의 경우 18세기 이후가 되면서 유

원지가 이를 계승하게 되었다. 원래 유원지는 궁정에서의 축제문화를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즐길 수 있는 것에는 콘서트·조명·불꽃놀이 등이 있었다. 유원지는 낮에도 개방하였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밤이 되어서야 시작되었고, 이 때문에 고급 사교 클럽이나 카페·레스토랑·고급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늦추게 되었다.

그 결과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밤의 문화는 오늘날 대도시 밤 생활의 원형이 되고 있다.

2.2 한국의 빛축제

우리나라의 경우 축하의 모태불이 서기 551년 신라 진흥왕 때 불교의 종교적 축제의 일환인 연등축제로 계승되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대한 종교문화행사로 발전하였다. 또한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달집태우기·들불놀이 등은 우리 조상들이 희망과 염원을 빛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아름다운 우리네 풍속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빛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빛축제가 가져오는 효과

3.1 종교적 의미

그리스도교·이슬람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불교는 과거 서역과 중국을 통하여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서양문물의 개방과 더불어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천주교와, 개신교에 의해 그 신도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0% 이상이 믿고 있는 종교로서 삼국시대 신라 진흥왕(서기 551년)때 시작된 연등축제가 오늘날 종교축제(종교놀이문화)의 일환으로 변모되면서 불교인만의 행사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등축제는 오늘날 4월 초파일 즉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종교적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Catholic에서 십자가의 형태가 갖는 종교적 상징성과 더불어 연등의 형태 또한 불교의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연등축제는 서구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교라는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행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2 지역의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빛축제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그 지자체의 홍보효과 일 것이다. 이는 관광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그 축제를 각인 시킴으로써 그 도시만의 고유한 축제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천시에서 열린 루미나리에의 경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로 하여금 설문을 의뢰한 결과 부천시의 이미지를 48%만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ity Marketing으로 계산 시 약 3000억원의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들불축제 또한 제주도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매년 내,외국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북제주군은 꾸준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계획에 의하여 국내외로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미지 개선 및 향상효과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3 지역주민에게 주는 감동 및 지역에 관한 자긍심·상승효과

빛축제가 각 지자체의 고유한 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각각의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빛 축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이벤트 일 뿐만 아니라 지루한 일상을 탈출할 수 있는 유희적 요소로서 도시의 활력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축제 방문객 간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이미지 상승효과에 따른 지역의 자긍심 효과를 가져왔다. 빛 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감동을 제공하고 지역에 관한 자긍심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도시의 Quality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3.4 경제적 파급효과

빛축제는 축제방문객에 의한 소비지출로 인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천루미나리에의 경우 부천시 지역경제에 발생시킨 총 생산 파급액이 48억4,700만원, 총 소득파급액은 11억 4,800만원, 총 고용파급자수는 133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천시의 창선삼천포대교 또한 다리 개통 이후로 2003년 한해 3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사천시를 찾았으며 관광객이 약 400억이 넘는 돈을 지역에 쏟아 붓고 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는 2003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한 수치로서 대교 교통 이후 사천시의 관광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사천시는 '5대 대교 조명축제'를 열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004년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위와 같이 빛 축제는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빛의 문화를 향유하는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4. 국내 빛축제 사례

4.1 제주 들불축제

(1) 제주 들불축제의 기원

정월대보름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음력 정월 보름인 1월 15일을 말한다. 우리의 풍속에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쥐불놀이·달집태우기·들불놀이 등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묵은 죄단과 마른 풀을 태워 쥐와, 해충을 죽이고 타고남은 재는 다음 농사에 거름으로 사용하여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는 밀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풍속은 이날 불을 놓으면 모든 잡귀를 쫓고 액을 달아나게 하여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민간신앙적인 소망도 담고있다.

(2) 제주 들불축제의 내용 및 특성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놀이(방애)와 제주 고유의 전통 민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 한 들불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날을 전후해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이어가고자 북제주군을 중심으로 제주도일대에서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다.

1997년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올해로 8번째를 맞는다. 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매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통적 풍습과 불(火)과 말(馬), 달(月), 오름(岳)등 제주의 전통 민속자원을 극대화하여 축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오름 하나(200,000m')를 모두 태우는 대규모 축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차별화 된 축제이다.

'무사안녕과 풍년기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음력 1월 14일과 15일 2일에 걸쳐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40여 가지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a) 풍년기원제



b) 봉화대 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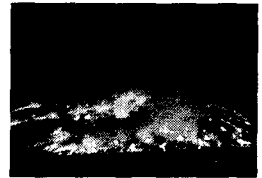
c) 달집태우기



d) 쥐불놀이



e) 불꽃놀이



f) 오름불 놓기

그림1. 제주들불놀이 모습

4.2 서울연등축제

(1) 연등축제의 기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연등은 기록상으로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간등(看燈)'이란 이름으로 신라 진흥왕(서기 551년)때에 전사한 장병을 위하여 外寺에서 7일동안 설행(국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국왕이 참여함)된 것으로 그 외에도 선덕여왕 때 황룡사에서 연등행사가 열렸다는 것 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전해져 신라 이래로 국가차원의 행사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등제는 고려시대에 들어서 전통의례와의 습합(習合)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성대히 국가적 종교놀이 문화로 발전하여 절정을 이루었는데 「春燃燈 冬入關」 이라 하여 연등도감(燃燈都監)과 팔관보(八關寶)라는 행사주관기구를 두고 국가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하고 주관하는 전 국가적 행사로 발전하였다. 매년 11월 15일에는 팔관회를, 2월 15일(후일 4월8일)에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연등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초파일 연등은 계속되었으며 연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초파일에 등 밝히기는 계속되어 왔다.

(2) 연등축제의 내용 및 특성

삼국시대 신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500여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연등축제는 우리의 세시풍속으로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려 오다가 오늘날 종교 축제(종교놀이문화)의 일환으로 변모되면서 불교 인민의 행사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를 서울시에서 불기2540(1996)년부터 '전통등'을 복원, 계승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서울연등축제로 이름 붙이고, 시민, 외국인이 참여하는 전통 문화 축제로 발전시켰다.

서울 600여년 역사와 함께 하여온 관동놀이의 흥겨웠던 전통을 살려 오늘날 과거에 한양의 육의전이었던 서울 종로 일원에서 매년 4월 초파일을 전후로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4월 초파일을 전후로 열리는 연등축제는 동대문 운동장~조계사에 이르는 제동행진을 비롯하여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대동(회향)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추가 되어 종합적인 축제로 전환되었고, 각 사찰에서는 거리에 등을 내달고 경내에 수많은 등을 밝히는 등공양 행사가 계속 이어져 각기 정성들여 만든 각양각색의 10만 여개의 등에 간절한 소망과 기원을 담아 등을 밝히고 있다.



그림2. 서울연등축제 모습

4.3 서울불꽃축제

(1) 불꽃축제의 기원

불꽃놀이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중국에서 국가의 경축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군사용 화포를 개량하여 폭죽을 쏘았던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용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 불꽃놀이는 서구세계 전반에 걸쳐 군사용 폭발물의 확산을 가져 왔으며 군사용 화약전문가들은 군대에 소집되어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축하하는 불꽃놀이 행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들어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과 같은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불꽃놀이는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불꽃놀이는 고려시대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화산회, 화포회등이 궁중 행사에 사용되었으며, 불꽃놀이는 나라에서 큰 규모로 하는 화상대(火山臺)와 일반인들이 흔히 하던 줄불 낙화(落花)와 딱총놀이 등이 있었다.

(2) 불꽃축제의 내용 및 특성

우리나라의 불꽃축제는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개·폐회식과 93년 대전 EXPO, 95년 광복 50주년 경축 한강 불꽃놀이 행사와 2000년에 실시한 중동 예멘 통일 10주년 대규모 불꽃놀이를 연출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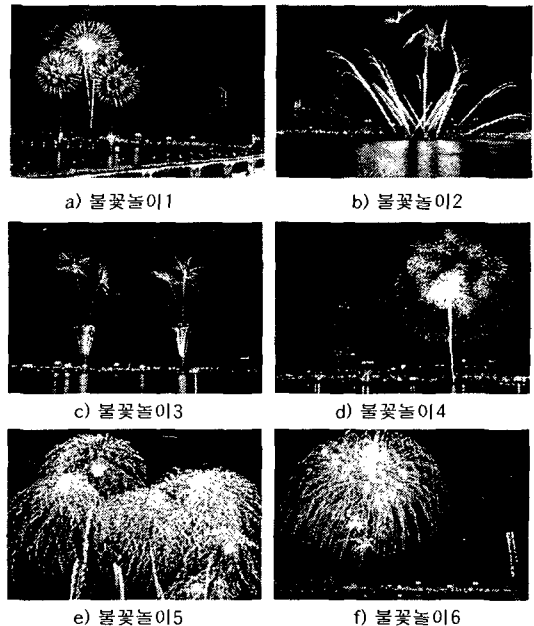


그림3. 서울불꽃축제 모습

또한, 2000년 10월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기원 및 대국민 화합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연화 사업이 국제무대에 손색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그 이후 불꽃 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기념으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이탈리아, 한국의 불꽃을 초대하여 5회에 걸쳐 각국의 불꽃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63빌딩 앞 및 야외무대 주변)에서 연출하였다. 2003년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Dream Fantasy 2003 의 주제로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 200만 명이상의 시민이 축제에 참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4 부천루미나리에

(1) 부천루미나리에의 일반개요

부천루미나리에는 2003년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게 된것으로 2003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경기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빛'을 테마로 한 대규모 축제인 '부천 루미나리에'를 개최하였다. 행사에 관한 일반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주 제: 400년 전 르네상스의 빛을 한국에서 만난다
- 부 주 제: '빛, 평화를 향한 꿈'
(Luce, Sogno di Pace)
- 개 최 일: 2003년 10월 1일 ~ 10월 20일
- 개최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상동호수공원
(5만 4000여 평)
- 대상건축물: 대형건축물 30여개
소형건축물 20여개
- 제 작: Mariano Light (Italy)
- 프로듀서: 추 성 욱

(2) 부천루미나리에의 테마

① 테마 1

- 컨셉: 평화를 향한 기원 (메인테마)
- 구조물의 치수: 높이 24m, 폭 40m



그림4. 호수에 비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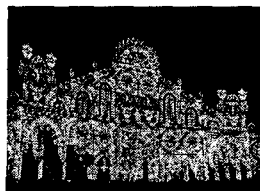


그림5. 메인테마 Facade부분

② 테마 2

- 컨셉: 복사꽃 세레나데
- 구조물의 치수: 길이 85m 터널



그림6. 3D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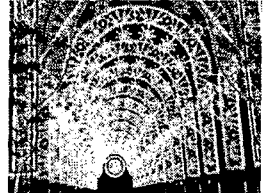


그림7. Spalliera 내부

③ 테마 3

- 컨셉: 빛의 연못
- 구조물 치수: 높이 10m 38개



그림8. 3D계획도



그림9. 빛의 연못

④ 테마 4

- 컨셉: 르네상스의 빛
- 구조물의 치수: 직경 40m, 높이 16.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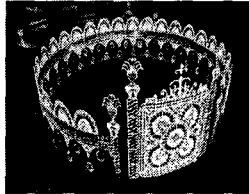


그림10. 3D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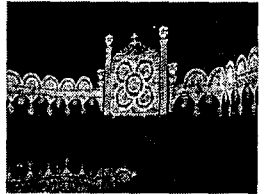


그림11. 원형의 Facade 부분

4.5 사천 창선삼천포대교 조명축제

1995년 2월 착공하여 2003년 4월 개통된 창선·삼천포대교는 한국 최초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천8경의 하나로서 교량 자체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남해군 또한 주변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한려수도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는 2003년 10월 15일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를 잇는 5개의 대교 중 삼천포대교와 초양대교에 조명 쇼를 개최하여 조명색깔이 바뀔 때 마다 5개의 조명 중 2개의 다리가 솟았다 숨는 등 다이나믹한 장관을 연출하였으며

2003년 10월 31일에 '삼천포대교 조명축제'를 개최하여 한려해상공원의 수려한 주변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 은둔해 있던 사천시에 큰 활력요소를 제공하였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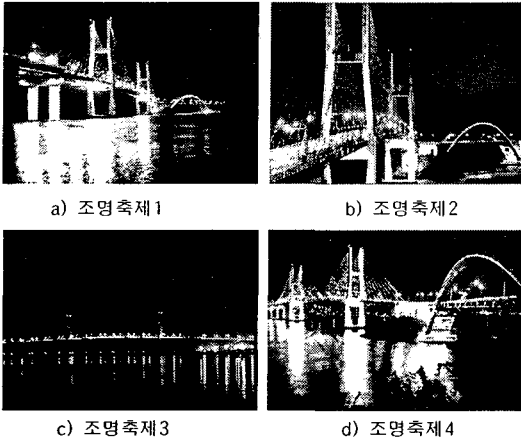


그림 12. 삼천포대교 조명축제 모습

5. 결 론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이용한 다양한 축제가 있었다. 사월초파일의 연등축제나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달집태우기·들불놀이 등은 우리 조상들이 희망과 염원을 빛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아름다운 우리네 풍속이었다. 오늘날 계속되는 도시화에 의해 마을 단위로 모든 일을 공동으로 해오던 공동체의 모습은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해체되었고 이러한 도시에서의 빛의 축제는 점차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부의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와 지자체의 정체성 구축을 목표로 빛의 축제를 도입하고 잊혀졌던 빛의 풍속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토속적이고 아름다운 빛축제는 서구 유럽의 화려한 폭죽, 조명탄을 이용한 빛축제와 어울어져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감동을 위하여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전통풍속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빛축체인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달집태우기·들불놀이가 오늘날 제주들불축제로 그 의미를 잇고 있으며, 삼국 신라시대부터 1500여년을 이어져 내려온 4월 초파일의 연등제는 서울연등축제로 이어져 오늘날 도시의 중요한 축제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시작된 폭죽·조명을 이용한 빛축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서울불꽃

축제와 루미나리에를 통하여 도시의 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빛축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성과 교인들의 집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계획, 개최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홍보의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지 향상에 따른 수익과 노동창출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 시켰으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하여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각 사업체의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됨으로써 사람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빛축제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빛축제를 관광자원화 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빛의 이벤트를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빛의 축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의 맥을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예술성이 함께 결부되어 발전해 나감으로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의 일부임

참고문헌

- [1] 배현미, "도시조명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9권 3호, pp.161~168, 2003.3
- [2] 부천루미나리에조직위원회,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행사 종합 결과보고서", 2003
- [3] 변정우, 이충기, 부천루미나리에조직위원회 "2003루미나리에 방문객 설문조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03
- [4] 정강화, "디자인으로 보는 세상-빛축제를 활성화 하자",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144호 2004. 6. 1
- [5] "지역축제를 찾아서-제주들불축제",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52권 592호 pp94-97, 2003
- [6] <http://www.luminarie.or.kr>
- [7] <http://www.lampfest.com>
- [8] <http://www.sacheon.go.kr>
- [9] <http://www.lif.or.kr>
- [10] <http://www.bulnori.com>
- [11] <http://www.kctpi.re.kr>